

※ 마이클 바버 주교님 인사 말씀 / 2022년 5월 29일 주님 승천 대축일

##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인 공동체가 엘리자벳스 성당으로 오는 것을 환영해 주신 플레즌튼 공동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인내심으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학교 강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며 기다려 주신 우리 한인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 형제자매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거룩한 공간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 튼튼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증언해주시는 형제자매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 번역: 이주하 요한

## I am so happy to be with you

I wish to thank in a special way the Catholic Community of Pleasanton for welcoming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to St. Elizabeth Seton Church. And I thank our Korean Catholic Community for your infinite patience while worshipping all these years in a public school auditorium.

I think we have all discovered new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By worshipping together, and sharing our sacred buildings, we form a stronger, healthier Church. Thank you my brothers and sisters, for your combined witness to the Love and Merciful Presenc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I am so happy to be with you.

